

美國의 情報 通信市場 戰略

1. 競爭政策의 歸結

미국전화통신회사(ATT)의 분할을 비롯한 미국의 通信自由化政策은 현재 큰 혼란과 동요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장거리 통신분야에서는 치열한 가격경쟁과 宣傳戰이 전개되고 있는 한편 경쟁도입에 따른 Access Charge(接結料)가 의회의 반발을 초래하고, Bypass라는 새로운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다.

宇宙에서는 衛星通信을 이용하여 國際通信에 신규 참가하는 움직임이 있으며 국제통신질서에도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高度情報通信社會의 根幹이 된다고 일컬어지고 있는 대규모VAN(附加價值通信網)은 의외로 주춤하는 등 지상에서 우주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가 山積하고 있다. 競爭導入에 의한 값싸고 좋은 서비스의 早期 실현이라는 理想이 구체화 하기까지에는 아직도 많은 시행착오가 되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혼란과 동요에 대해 미국내에서 비판이 커지고 있지만 競爭促進政策 자체에 대해

서는 의심을 하지 않고 있다. 약간의 混亂이 있더라도 경쟁이 미국의 정보통신산업을 活性化시키고 나아가서는 기울기 시작한 미국의 Leadership을 재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내의 자유화정책은 앞으로 국제통신의 自由化로 발전해 나갈 것이 틀림없다. 미국내의 경쟁으로 힘을 축적한 정보통신산업이 국제분야로 진출할 때에, 세계의 정보통신질서는 새로운 재편성이라는 큰 너울을 둘러쓰게 된다.

미국의 통신자유화를 표본으로하여 일본도 통신을 자유화하는 電電改革法案이 次期 通常國會 개회와 더불어 성립될 전망이다. 미국의 자유화가 국제통신질서의 재편성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라면 일본은 다만 미국의 뒤를 쫓는 것만으로 되는 것인지, 미국통신정책을 지금부터 차분하게 파악해둘 필요가 있다.

ATT는 司法省과의 獨禁訴訟이 和解를 보자 지난 1월 1일부터 22개 지방전화회사를 분리했다. 이 결과 장거리 전화시장에서는 신규로 참가한 MCI 커뮤니케이션즈社와 GTE 스프린트社 등과의 경쟁이 한층 격화되었다. 분리되기 이전부터 신규참가회사와의 경쟁은 있었으나 ATT이외의 장거리회사를 이용할 경우에는 그 회사의 交換局을 呼出하기 위해 필요없는 다이얼을 돌릴 필요가 있었다. 그것이 금년부터 신규참가회사도 ATT와 마찬가지로 10자리수의 다이얼로 장거리전화를 걸 수 있게 되었으며 이것을 계기로 고객의 쟁탈전이 벌어졌다. 다만 10자리수로 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개조할 필요가 있다. 이 공사가 끝난 지역으로부터 순차적으로 평등한 接續條件이 실현되었으며 1986년까지 全美에서 평등한 경쟁조건이 확보될 예정이다.

ATT와 같은 조건으로 장거리전화를 걸 수 있게 되는 지역에서는 출범전부터 치열한 이용자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 첫 지역은 West Virginia州의 찰스턴이다. 각사는 유명한 талан트를 동원하여 선전을 벌이는 등 화려한 선전전을 전개함으로써 매스컴을 소란케 했다. ATT이외의 회사와 계약하지 않은 이용자는 종전대로 ATT와 계약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ATT측이 유리하게 봤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A-

TT의 이용자는 약80%, 신규 참가회사의 20%의 쉐어를 획득했다.

현재 장거리 전화시장의 92.3%는 ATT가 독점하고 있지만 찰스톤에서의 쉐어 쟁탈전 결과는 앞으로의 장거리 전화시장에서의 행방을 점치는데 있어서 하나의 참고가 되고 있다. 신규 참가회사가 쉐어를 늘릴 수 있었던 것은 평균 40%나 싼 요금의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미국의 전화요금체계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장거리 전화에서 벌어들여서 시내전화를 보조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ATT가 시내전화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전화회사를 분리해 버린 결과 장거리 부문에서 얻어진 이익을 市内部門에 돌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못하게 되었다. 당초 聯邦通信委員會(FCC)는 장거리 전화의 收入 요금에서 일정비율을 지방전화회사에 지불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이것으로는 장거리 전화 이용자의 부담이 부당하게 무거워지기 때문에 ATT이외의 장거리회사는 시내전화망을 Bypass하여 직접 이용자와 접속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Bypass하기 위해서는 CATV와 LAN (構内通信網보다 넓은 지역통신망으로서), 私設 마이크로웨이브, 通信衛星을 이용한 직접 送受信, 또는 自動車 電話로 이용되고 있는 Cell방식 無線 등이 생각된다. 장거리 전화를 이용하는 것은 大企業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이용자수는 적지만 지불하는 요금은 늘어난다. 어떤 조사회사가 예측한 바로는 이들 대량 이용자가 Bypass하게 되면 1992년에 지방전화회사는 100억弗의 收入을 잃게 된다고 한다. 만약 대량 이용자가 지방전화회사를 Bypass라도 하게 되면 지방전화회사는 남은 個人이나 소량 이용자의 요금을 대폭 올리지 않으면 안되게 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영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같은 사태를 피하기 위해 FCC가 생각해 낸 것이 Access Charge로서, 장거리 전화에서 시내전화에 보조하는 것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려 한 것이다. 이것은 전화기본요금을 월2弗에서 6弗로 올리려는 것으로 소비자와 의회로부터 맹렬한 반대의 불길이 치솟았다. 上院, 下院이 한결같이 Access Charge案을 수정하는

법안을 준비하자 FCC는 이의 실시를 내년 중반까지 연기하기로 했는데 多數의 事務用 電話를 가진 대량 이용자의 Access Charge 徵收는 금년 6월부터 실시했다.

지방전화회사를 Bypass한 쪽이 유리한 것은 신규 참가회사만이 아니다. ATT 자신이 Bypass하여 장거리 回線과 利用者를 직접 접속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뉴욕 맨해튼島에는 대규모 위성통신용 地上局을 건설하여 對企業 通信 서비스를 提供하려는 Teleport 계획이 추진되고 있지만 그것이 여기 저기에서 실현되면 지방전화회사는 市内通信이 Bypass되어 그야말로 밥줄이 끊어지는 死活문제가 일어난다. ATT는 현재 지사의 통신위성인 트랜스폰더(中繼器)를 고객에게 직접 대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으며 지방전화회사로서는 한때의 母企業인 ATT가 최대의 라이벌이 될 정세에 있다.

그러나 어려운 경쟁을 하면서도 지방전화회사가 제2의 ATT로 성장할 가능성도 있다. Local Service만으로는 성장할 수 없음이 뻔하기 때문에 각 지방전화회사는 신규사업을 벌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 중에는 NASA (미항공우주국)와 짜고 장거리 서비스를 계획한다든지 V-AN사업을 생각하고 있는 것도 있다. 修正 同意 審決에 의해 결정된 사업범위내에서는 살아 남을 수 없다고 이의 적용을 제외해 주도록 촉구하는 신청이 잇달아 각주의 연방지방 재판소에 제출되고 있다.

司法省은 좀더 시내서비스를 장거리 회사에 대한 평등 접속에 힘을 기울이도록, 이와 같이 지방전화회사의 제멋대로의 행동을 견제하고 있지만 자유화의 벽이 무너진 후에는 각기업의 행동을 말리기는 어려운 정세에 있다.

2. 인텔서트의 危機

일본에서도 電氣通信事業法案이 성립되면 국내통신이 자유화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통신도 자유화된다. 日本의 經濟團體聯合會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그룹은 통신위성에 의한 국내통신으로의 신규 참가를 검토하는 동시에 동위성을 국제통신에도 이용할 것을 생각하고 있다. 이미 한국의 Think Tank가 한국내의 통신에 동

위성인 트랜스폰더를 빌릴 것을 타진해 오는 등 국제적으로 이용하는 움직임이 표면화 하고 있다.

동연합회로서도 衛星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만이 아니라 대만과 홍콩 등 동남아 제국과의 공동이용 내지 地域衛星으로서 국제통신에 사용하는 길도 검토하기로 되어있다.

한발 먼저 국제통신에 경쟁도입정책을 추진하는 미국에서는 기존 국제통신질서에 도전하는 움직임이 표면화하고 있다. 인텔서트(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와 결합하는 민간의 국제통신위성 발사 구상의 마찰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인텔서트가 발족한지 올해로 20년이 된다. 太平洋, 그리고 인도양 상공의 靜止軌道에 통신위성 세계를 쏘아올리면 전세계의 국제통신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통신의 일원적인 운영을 지향하여 설립한 기관인 것이다. 인텔서트 條件에 가맹하고 있는 국가는 현재 109개국이다. 각국이 모두 인텔서트를 경유하지 않는한 통신위성에 의한 국제통신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게 된다.

인텔서트를 경유하지 않는 국제통신에는 동남아제국연합(ASEAN)의 파라디衛星, 아랍제국의 아랍서트 등이 예외적으로 있지만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인텔서트에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한정된다. 인텔서트條約 제14조에 따라 이러한 예외는 締約國 總會의 승인이 필요하다. 원래 국제통신을 일원적으로 운영하고 예외를 두지 않는 쪽이 경제적이며 각국이 협력하여 국제통신을 하는 쪽이 세계평화의 이상에도 합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미국으로서, 일본은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통신위성은 인정하자고 주장한 적이 있다.

「통신이 맺는 하나의 세계」라는 케네大統領의理想은 처음부터 共產圈의 반대로 실현되지 않았으나 서방측 제국 사이에서는 인텔서트로 실현되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현재 미국자신이 수립한 이상을 스스로가 반복하지 않으면 안될 사태가 되고 있다. 일본에서도 國際電電(KDD)에 의한 국제통신의 독점은 電電改革 3法案이 성립됨으로서 부정되어 경쟁원리를 도입하게 되었는데 미국에서는 한발 먼저 국제통신에 경쟁

정책이 도입되었다. MCI라던지 SBS가 ATT에 대항하여 국제전화·국제데이터 통신분야에 신규 참가하는 것을 계속 모색하고 있다. 또 국제전보와 Telex를 취급해온 RCA와 ITT 등 記録通信과 ATT가 독점해온 국제전화의 울타리도 이미 철폐되어 ATT는 국제데이터 통신분야에 진출했다.

이와 같은 움직임으로 당연히 예상되는 것이 통신위성에 의한 국제통신으로의 신규참가이다. 작년이래 이미 6社가 통신위성에 의한 국제통신사업 진출의 인가 신청을 FCC에 제출하고 있다. 통신위성은 거리가 멀수록 경제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통화량이 많은 歐美間의 大西洋上에 통신위성을 쏘아 올리면 충분히 채산성을 맞출 수가 있다고 보고 신청하는 것이다. 전세계 동일 요금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인텔서트는 채산이 나쁜 太平洋이나 인도양의 통신도 포함한 평균요금이기 때문에 大西洋의 요금은 실제의 코스트보다 높다. 그러므로 大西洋만의 서비스이면 인텔서트보다 요금이 싼 서비스가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 말하자면 인텔서트의 Cream Skimming을 할 수 있게 된다.

대서양에서 인텔서트가 고객을 잃게 되면 그분량만큼 태평양, 인도양지역의 通信料金を 올리지 않으면 채산성을 맞출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인도양지역의 수요자는 개발도상국이 많기 때문에 미국의 대서양 위성구성은 개발도상국의 반발을 초래했다. 작년과 올해의 두번, 서명당사자(각국을 대표하는 국제통신사업자) 총회에서 「미국의 인텔서트와 결합하는 통신위성은 인텔서트의 唯一 世界商業衛星 시스템의 존속에 중대한 영향을 주고 수요자에 심각한 경제적인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결의를 채택했다.

국제적으로 고립한다는 것을 우려하여 FCC는 신청을 받아 들이긴 했으나 아직도 인가를 내리지 않고 있다. FCC는 독립규제위원회이므로 독자적인 판단으로 인가할 수 있는 것인데 백악관이 내릴 결단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미정부내에는 상무성이 국내통신에서 경쟁을 도입한 이상 국제통신에도 경쟁을 도입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인데 對外交關係를 중시하는 國務省은 가령 국제통신에 경쟁을 도입하

더라도 인텔서트의 활동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한다.

競訴시스템의 신청자 가운데는 진지한 기업도 있으나 신원을 알수가 없는 그룹으로부터의 신청도 포함되어 있다. 어떤 소식통의 설명에 의하면 신청 제 1 호가 된 오라이온의 투자가는 CATV 산업을 중심으로한 개인투자가 그룹이라고 한다. 새 서비스의 인가를 얻게되면 운용개시될 때까지 그 이권을 파는 것이 아닐까 하고 보고 있다.

국제통신질서를 무너뜨리는 듯한 競訴시스템의 인가에 미국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그 뒤에서는 靜止軌道位置와 周波數의 국제할당 수정을 획책, 경합시스템을 국제적으로 認知시키는 측면 지원적인 움직임을 시작하고 있다. 미국은 한정된 케도위치와 주파수를 경제적이고 유효하게 사용하기 위해 할당은 유연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은 기술과 시장을 우선하는 할당은 장래에 자기들의 발전에 제약 요인이 된다고 경계하고 있다.

이 문제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회의에서도 논의되었으나 미국은 「ITU를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국제통신 질서의 재편성을 은밀히 노리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국제통신에서도 자유화가 진전되고 있다는 것은 앞에서 언급했지만 IBM의 자회사인 SBS는 通信網을 세계 각국에 확대하고 있다. 이미 영국과 이탈리아, 네델란드, 홍콩 등과 運用協定을 체결하고 있는데 일본에 대해서도 비즈니스 通信의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 KDD와 運用協定의 체결교섭을 추진하고 있다. MCI는 유럽에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한편 일본에도 타진하기 시작한 모양이다.

3. 巨大市場의 結合

한편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한 여러 가지 정보서비스가 미국에서 번창하기 시작했다. IBM, ATT가 시작한 대규모 VAN인 것이다. 인포메이션 네트워크(IN)와 AIS/NET1000이 주목을 모으고 있으나 최근 미국내에서는 평판이 좋지 않다. 보스턴에 있는 컨설턴트회사인 양키그룹

의 하워드 앤더슨 사장은 현재대로는 IBM, ATT의 정보서비스부문을 기대할 수가 없다고 말하면서도 언젠가는 네트워크의 재편성이 일어난다는 예언을 했다.

「ATT로서는 AIS/NET1000은 완전히 기대를 벗어났다고 본다. 1977년에 발표된 이래 현재까지 거의 가동을 못하고 있다. 1984년의 收入 전망은 800만 弗이다. IBM쪽은 조금씩 신장하고 있으나 아직 17개 도시밖에 커버하지 못하고 있다. 양사로서는 우리들이 슈퍼 서비스부로(高度서비스부문)이라고 부르고 있는 분야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부문이라고 생각한다. IBM은 이를 지렛대로 하여 그들의 Package Soft와 새 Soft를 판매하려고 한다. IBM/IN의 이용자가 늘어나면 Soft가 팔리고 대형 컴퓨터도 팔린다. 이에 대해 ATT는 잘되지 않고 있다. 그 최대 이유는 어떠한 端末機에도 접속시키려 한 것이다. 제2의 이유는 미니컴퓨터나 퍼스널 컴퓨터의 값이 싸져서 고도서비스부문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최대 서비스기업은 GEISCO 이지만 연간 매출액은 7억5,000만 弗밖에 되지 않는다. ATT는 NET1000을 판매하는 데 결정타를 가지고 있지 않다.

「만약 우리회사가 NET1000을 사용한다면 電子Mail에 사용하겠지만 社内の 수요가 많아지면 自社 Net를 가진 쪽이 싸게 먹힌다. NET1000은 自社 Net보다도 50% 비싸진다. 먼저 나온 Timenet, Telenet에 비해서도 20%는 비싸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시장에 대한 대응이 늦었다. 이미 Telenet와 Timenet의 수요자가 ATT의 서비스로 바뀔 이유가 없다.」

「확실히 VAN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분야이지만 다른 컴퓨터 메이커가 이에 손을 대는 이유는 IBM의 공세로부터 수요자 그룹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ATT는 최근 NET1000에 의욕을 잃기 시작했다. 우선 순위는 5 번째에서 6 번째로 후퇴했다. 나머지 5년간은 힘든 시대가 계속될 것으로 생각한다. 여기서 ATT가 하는 것은 다른 네트워크를 매수하여 ATT와 접속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다. 일본에서 NET1000의 事業展開를 한다면 電電公社와 제휴하여 全시스템을 판매하게 될 것이 아닐까. 이와 같은 것을 ATT

는 유럽에서 시작하고 있다。」

IBM은 일본IBM을 통하여 직접 진출할 방침을 굳히는 한편 ATT는 합작회사로 사업을 벌일 생각이다. GEISCO는 이미 電通國際情報서비스와 제휴하고 있으며 美國의 네트워크가 굳게 결합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본다. 일본국내의 VAN과 美國의 VAN을 연결하여 보다 대규모화 함으로써 사용하기 편하고 코스트가 싼 시스템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국제통신회선의 타인사용이 허용되지 않으면 안된다. 국내통신회선의 자유화가 진전되지 않으면 VAN事業化를 하지 못했던 것과 같이 國際回線도 자유화가 진전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國際VAN을 구축할 수가 없다.

그런데 ITU의 권고로 국제통신회선의 專用線은 他人使用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여기서도 미국의 通信戰略은 국제협정의 벽에 부딪치고 있다. 일본이 국내, 국제에서 통신의 자유화를 추진하면 미국통신산업이 세계에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보다 강력한 情報通信産業으로 성장하는 데 크게 공헌한다.

일본은 이미 미국에 이은 정보 통신시장이며 세계의 2대시장을 네트워크로 접속하면 그 시장은 세계의 대부분을 차지해 버린다. 국제협정도 거대시장의 압력에 눌러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미국의 통신자유화 정책이 다소의 混亂을 초래하더라도 그것이 미국의 산업을 活性化시키고 나아가서 IBM, ATT를 비롯한 정보통신산업의 거대화를 가져오게 한다면 미국로서는 대성공이다. 그러나 그 한편에서 미국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걸잡이가 되는 것이 일본의 통신자유화 정책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電電改革 3法の 뜻도 또한 달라진다.

4. FCC 파우러委員長과의 인터뷰

가. ATT分割後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분할이후 3개의 전화회사와 겨루지 않으면 안되게 된 것은 확실히 큰 변화의 하나이지만 소비자가 사정을 잘 몰랐기 때문이며 이젠 소비자들은 이해하고 있다. 급격한 변화가 있으면 약간의 혼란은 불가피하다.

에어라인이 규제받고 있었던 시대에 경제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74地區의 에어라인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으나 최근 수년간 대형 항공회사가 포기한 이들 地區에는 새로운 회사가 들어섰다. 더우기 이전보다 23% 便數가 늘어나고 요금도 이전보다 22%나 싸졌다. 요금이 떨어진다는 것은 요즘으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경쟁의 성과이다. 처음에는 다소 혼란이 일어날지도 모르지만 경쟁은 결국에 가서 소비자에게 공헌하고 있다. 금융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유화후 새금융 상품이 수천개나 나왔다. 이 가운데서 소비자는 제일 좋은 것을 선택할 수가 있으나 어떤 의미에서는 혼란이 일어난다. 휘발유의 가격도 마찬가지이다. 정부가 석유 가격을 자유화 했을 때, 약간 휘발유 가격이 올랐으나 현재 휘발유 가격은 겐론당 1弗 정도로 과거 10년간에 가장 낮은 수준에서 안정되고 있다.

端末機를 개방했을 때도 일부에서 가격이 오르고 네트워크의 품질을 유지하는 데 손실이 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그러나 電話의 연간 임대요금은 40弗이었던 것이 지금은 19.95弗로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장거리 전화요금도 경쟁의 결과 40~50% 떨어졌으며 지금까지 이상적으로 기술혁신이 진전되고 있다.

나. Access Charge의 通用이 延期되었다고 하는데...

대량 수요자의 Bypass를 피하는 뜻에서 加入者의 Access Charge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인데 가입자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더우기 보편적인 서비스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적용은 1년 연기되었으나 이 논쟁에서 우리는 질 수가 없다.

현재의 요금제도로는 시외전화를 걸 경우 1분간에 15센트를 市内網에 보조 형식으로 지불하고 있다. 市内網을 Bypass하면 이 15센트는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6%의 대량 수요자가 全收入의 61%를 지불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다. 만약 이 대량 수요자가 Bypass해 버리면 남겨진 개인 수요자의 요금은 5~6배 내지 10배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거리 요금에 포함되

는 이 15센트를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가입자의 부담으로 옮기지 않으면 안된다. 만약 잘 되지 않으면 보편적인 서비스를 잃게 되며 시내요금 이 올라가고 장거리 요금을 인도하는 메리트를 잃게 된다. 통신자유화가 가져오는 국민경제적 메리트도 잃어버린다.

워튼協會가 조사한 바로는 앞으로 4년간에 40만명의 고용이 발생하여 460억弗의 새로운 富가 창출되며 정부의 적자는 210억弗 감소한다고 예측되고 있으나 그것은 네트워크가 효율적인 요금제도 아래에서보다 사용되면서 처음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다. 유니버설 基金이라는 제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장거리에서 시내에 대한 보조분인 15센트를 차감하더라도 1센트 정도 장거리 요금은 실제의 코스트보다 높다. 이들을 적립하면 연간 10억弗 정도가 된다. 이 자금을 市内網의 건설 코스트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방전화회사에 보조한다는 것이다. 1986년부터 실시할 생각이다.

..... (P. 41에서 계속)

지정하였다. 지나간 몇년 동안 정부와 업계는 새로운 제품과 기술의 연구개발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였다. 대만은 금년의 전자쇼에서 이 나라의 전자산업이 컴퓨터化와 하이 테크놀로지化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컴퓨터와 주변기기, 마이크로프로세서, LSI, 積層PCB, 디지털 오디오와 비디오 제품 등 고도 기술제품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신장이 있었다.

5. 컬러 디지털 TV

전시회 기간 중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컬러 디지털 TV의 소개로 이는 ERSO와 Shinlee, Te-co, Kolin, Sampo, Tatung, Proton, Matsushita, Chung Hsin 등 11개의 TV제조 업체와의 공동 노력으로 개발되었다. 새로운 컬러 TV는 종래의 아날로그 회로 대신에 디지털 회로를 채택한 것이 특징이며 화면이 선명하다. 덧붙여 디지털 컬러 TV는 스테레오로 수신할 수 있고 화상정보와 텔레텍스트의 송수신이 가능하다. 산업계의 전문가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디지털 컬러

라. ATT는 ATT IS를 再統合하겠다고 신청하고 있는 한편 지방전화회사는 端末機器의 生産販賣도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장거리 기본서비스와 機器 판매, 高度서비스의 경우는 소비자의 메리트가 될지도 모르지만 市場競爭에 악영향이 나올지도 모른다. 현재 신중히 심의하고 있다. 그러나 제2차 컴퓨터 조사가 기본서비스와 高度서비스의 분리를 촉구한 이유의 하나는 아니다.

지방회사는 同意審決로 端末의 생산은 금지되었으나 分離會社이면 端末과 高度서비스의 판매는 허용되고 있다. 다만 세일즈맨이 지방의 네트워크 서비스를 판매할 때 함께 端末機器와 高度서비스의 販賣도 할 수 있는 쪽이 소비자에게는 편리하지 않느냐는 호소도 나와있다. 端末과 네트워크 서비스를 별도의 회사에 두 주문을 하는 것은 대단히 번거롭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도 제2차 컴퓨터 조사를 제고하게 되기 때문에 코멘트를 할 수가 없으나 다만 일반론으로서 과잉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러 TV제조업체는 몇 안된다고 한다. Matsushita와 ITT가 디지털 컬러 TV를 생산하고 있다. 디지털 컬러 TV의 개발은 TV제조기술의 획기적인 성과이다.

컬러 TV샷시 설계의 표준화에 필요한 주요부품인 Bipolar IC가 정부, ERSO, 민간기업 협동으로 200만弗을 투자하여 개발하였다. Bipolar IC가 대량생산되어 대만의 TV메이커의 Bipolar 해외 수입의존성에서 탈피할 수 있게 되었다.

컴퓨터 주변기기는 중요한 수출품목이며, A 24-Pin Dot matrix printer와 5MB full-height Hard disk drive가 ERSO에 의하여 개발되어 그 기술이 민간기업에 전수될 것이다.

세계적인 시장수요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만 전화기 제조업체는 다양한 디자인과 높은 가격의 다기능 전화기를 전시했다.

Show에 전시된 품목 중에서 인기를 끈 품목은 Moving message sign 26" Hi-Fi부품, 마이크로프로세서가 통제하는 「말하는 엘리베이터」가 있었다.

(참고자료 : Show Magazine Electronics 11월호)